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노 동 일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에 비판이 쏟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약속을 어긴 게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누가 강요했던 것도 아니다. 국민 앞에 공표한 답화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법치주의의 요구 때문이다.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것이다. 법치에 대한 요구는 이처럼 국민의 생각 속에 스며들어 있다. 최고 권력자도 법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주의 사상은 기실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우는 더구나 그렇다. 나와 같은 대다수 장년층은 헌법마저 장식에 불과했던 엄숙한 시기를 몸소 겪었다.

### 종교칼럼



연 광  
증심사주지·광주불교연합회장

봄·여름·가을 그렇게 무던히도 성장하던 모든 생명체들이 이제는 나래를 접고 조용히 겨울 준비를 하고 있다. 모두가 나름대로 결실을 맺은 채 세월의 인연을 따라 곳곳으로 흩어지는 자연의 시간이다. 우리 또한 이 자연의 시간 속에서 벗어 날수가 없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이렇게 인연 따라 만났다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우리 옛 어른들 또한 인연을 소중히 했다. “인연이 아닌 게지”, “인연이 닿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듯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바라는 것과는 달리 일이 성사되지 않을 때 체면을 썩어 흔히 하는 말이다. 우리 옛 어른들은 좌절과 고뇌의 심연(深淵)을 인연으로 풀면서 마음속으로 삭이며 살아왔다.

그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딸이 사위에 게 사연도 까닭도 없이 맞고 피멍을 안은

### 기 고



조 안 영  
조안성형외과원장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국민 대다수가 품고 있다.

지난 5일 국정조사에서 한 여성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2014년 4월15일 사진과 다음날인 16일 사진을 들고 나와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장면을 TV화면을 통해 봤다. 그런데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각종 의혹이 가려지는 듯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궁금해 하는 대통령의 성형의혹 등에 대해 성형외과 전문의의 시각에서 추론해 볼까하는 용기를 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과 의료 경험 등을 토대로 한 추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오해가 없길 바란다.

대통령의 얼굴 사진과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날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듯 하다. 물론 필러나 보톡스 수술을 받거나, 가는 바늘을 이용한

## 느려도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

복잡한 심경으로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것도 그래서이다. 매일 같이 경쟁하듯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이상한 소식이 쏟아져 나온다. 더 듣고 싶지도 않은 내용들이다. 급기야 청문회 석상에서 ‘최순실-박근혜 공동 정권’ 얘기까지 나왔다. 차은택 씨가 최 씨에게 장관과 수석을 추천하니 그대로 되는 걸 보며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다고 증언한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분노, 자괴감, 배신감, 허탈함에 휩싸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사실이라면’ 당장이라도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 되는’ 기준을 이렇게 설정했다.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만 보면 이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아무 것도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점이다. 수많은 국정 농단 사례들을 보면서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언론 보도는 여전

히 의혹 수준인 것이 많다. 아직 법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검찰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법의 문턱을 겨우 넘었지만 갈 길이 멀다. 대통령 본인 수사는 시작도 못했고, 검찰 발 기사 역시 부인되기 일쑤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만 확정된 사실로 다룰 수 있다. ‘당장 하야’를 외치는 감정에 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게 법치주의의 요구 사항이다. 대통령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의혹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탄핵 역시 이런 법치주의의 산물이다. 왕의 목을 치거나 유폐시키는 등의 역사를 겪은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진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탄핵 재판에서 사형까지도 과할 수 있다. 미국은 공직에서 쫓아낼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만 보면 이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아무 것도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점이다. 수많은 국정 농단 사례들을 보면서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언론 보도는 여전

## 팔자와 인연

채 돌아왔을 때 “네 인연이 그러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다. 딸의 인연이 애달고, 가련하고, 측은해 마음 아파했다.

딸은 ‘팔자’를 타하지만 어머니는 굳이 인연 수치를 강조했다. 딸의 팔자가 비관이라면 어머니의 ‘인연’은 긍정으로서, 곧 네 업이니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라는 긍정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 또한 이 세상의 인연이 다하여 다른 세상으로 간 것이라 여기면서 허전함과 애간장의 마음을 달랬다. 이는 하늘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것이 죽은 자식의 저승길에 장애나 누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모든 것을 굳이 인연으로 돌리려 했다.

‘인연 따라’ 내세(來世)만이라도 잘 살기를 비는 부모의 마음에 어찌 피눈물이 고이지 않았겠는가? 이렇듯 모든 인고(忍苦)를 인연 속에 묻고 살았던 것이다.

“소매 자락만 스쳐도 오백생 인연(五百生因緣). 한번 정해진 배필이면 천생연분(天生緣分)이라는 인연관(因緣觀)”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의 특성이 순종과 끈기, 은근과 근면, 낙천과 소박은 정착되지 못했을 것이다. 가난과 역경, 불행의 삶을 인연으로 완충시키지 않은 채 역만 그대로 또는 욕망에 순응하여 살아왔다면 혼란과 파탄의 민족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

런데 지금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풍조가 사라지고 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삶, 나의 성취를 위한 삶, ‘우리’만의 행복을 위한 생존심(心)이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오늘날의 초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몇 년 동안 일어난 우리의 불행들이 모두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양심을 속인 나의 성취를 위한 삶에 눈이 어두워 이 사회 곳곳에서 말도 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나’는 소중히 하면서 ‘너’는 무시하고, ‘너희’는 죽어도 ‘우리’는 배불러야 하고, 국민은 배고파도 대통령만은 배불러야 한다는, ‘인연’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의 성취욕 때문이다.

세상사(世上事)는 인연생기(因緣生起)라고 한다. 즉 모든 것은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는 인(因)과 직접적인 원인을 도와 결과를 낳게 하는 조건인 연(緣)의 결합에 의하여 생기고 일어난다는 뜻이다. 세상사 모든 일들도 인(因)과 연(緣)이 합해지면 일어나고, 인과 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다른 뜻’은 무시하고 ‘나의 것’만을, ‘남’은 무시하고, ‘나’만 홀로 성취하러 하면 결국은 ‘나’ 또한 붕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

중요한 역사적 선례를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 최종 기각된 노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번엔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파면이 정당화되는 기준을 만들 수 있다. 후세의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에게 경계의 척도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나 진박계 의원들을 위해서도 탄핵은 바람직하다. 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본인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라고 한다. 현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많은 의혹의 사실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진박계 의원들은 따라서 굳이 탄핵 자체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

아당 역시 탄핵이 가결된다면 당장 물러나라는 주장을 멈춰야 한다. 2004년 이전,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것이라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엄중한 의미를 갖는 대통령 탄핵이다. 불과 10여 년 만에 탄핵이 되풀이되는 헌정사적 불행은 우리 눈앞에 두고 있다.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정략적 판단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닌 것이다. 답답해 보이지만 법치주의는 역사적 지혜의 산물이다. 느려도 법치주의를 충실히 따를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社 說

## 오늘 탄핵 표결…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오늘 이뤄진다. 찬성 200명 이상으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어제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에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제의를 요구해 끝까지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대목도 그대로 유지됐다.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은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다. 만약 밤 12시를 넘기게 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는 최대 220명 안팎의 찬성으로 가결을, 진박계는 190명 선에서의 부결을 거론한다. 하지만 무기명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

탄핵에 참석하지만 탄핵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도 있다. 일반적인 관측과는 달리 탄핵 찬성 의원이 적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부결이 되면 정국은 일대 혼란으로 치달을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탄핵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대의기구인 국회가 탄핵 부결의 선택을 할 경우 광장의 촛불은 여의도로 향해 국회 해산론까지 나올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제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1·2차 청문회에서는 언론 보도 등으로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입증됐다. 주말마다 수백만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오른 것 역시 이처럼 무능하고 뻔뻔한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권좌에서 내려오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다. 오늘 국회는 그러한 국민의 명령에 답을 해야 한다.

이제 국회는 사회 전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한다.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가결은 반드시 필요하다.

## 안 나오면 그만, 나와도 모른다 ‘답답 청문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두 번의 청문회가 열렸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실제적 진실을 파고드는 예리한 질문이 드문데다 회동과 고함, 엉뚱한 질문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의원도 많았다.

어제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 전 문화부 차관, 차은택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국정 농단 실제 규명은 고사하고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찌된 일인지 장 씨에게 “이모를 잘못 만난 윤명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생뚱맞은 당부를 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장 씨에게 “결혼 언제 했어요?” 등 황당한 질문을 했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이름도 몰랐다”고 잡아떼는 김 전 실장을 몰아세워 잠시나마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마저도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영상에는 최 씨 관련 대목이 나오는데 김 전 실장이 참가하는 모습에 담겨 있었다.

이번 청문회는 최 씨를 비롯한 핵심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아 애초부터 맥이 빠졌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은 최 씨 일족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청와대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 등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도대체 국민들을 무시하는 이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지 안타까울 뿐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증인들에게 맥을 못 추는 국회의원들도 개탄스럽기는 마천가지다.

### 無 等 鼓

호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잘 알려진 ‘줄리아 길러드’는 지난 2013년 노동당 대표 경선에서 패배해 총리직에서 물러나 했을 때의 느낌을 ‘주먹으로 맞는 고통’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영국 가디언지 특별기고를 통해서다.

“나에게 ‘권력을 잃었다’는 느낌은 엄청난 감정의 몰결로, 그리고 극심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팬텀아’라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누군가가 위로를 건네거나, 찬장 정리를 하다가 (총리 재임 중 받은) 기념품을 발견했을 때, 심지어는 총리 시절에 대한 응답을 주고 받을 때조차도 갑작스럽게 고통이 튀어나왔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은 고통은 너무도 심해서 내장은 물론 말단 신경까지 아플 정도였다.”

“권력을 잡고, 또 놓치지 않으려는’ 행동 양식은 대부분의 사람에게겐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인지 당시 길러드 전 총리의 솔직한 심경 고백에 고개가 끄덕여졌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얼마 전, 총리로 8년 그리고 집권 국민당 대표로 10년을 활약한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며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나이도 55세로 한창때인 데다 평소 좋아 내던 총선에서도 무난히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만큼 주변의 충격은 컸다. 그는 “그동안 권력을 내려놓지 못한 슬픈 지도자들을 봐 왔지만, 지금 당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며 “총리로 일한 것은 엄청난 경험이었지만,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이치를 건네거나, 찬장 정리를 하다가 (총리 재임 중 받은) 기념품을 발견했을 때, 심지어는 총리 시절에 대한 응답을 주고 받을 때조차도 갑작스럽게 고통이 튀어나왔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 같은 고통은 너무도 심해서 내장은 물론 말단 신경까지 아플 정도였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으로 온 나라가 요동치는 요즘, 아직까지는 키 총리처럼 허물 벗듯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물러나고 싶은 이가 왜 없을까마는, 혹시 나중이라도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터다. 뒤날 두려워하지 않고 홀을 떠날 수 있는 키 총리를 부러워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 대통령의 사생활과 성형 시술

시술은 멍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멍이 들더라도 박 대통령처럼 진한 화장을 한다면 가려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은 시술을 하지않았다는 게 추론이 성립한다.

다만, 박 대통은 취임 후 각종 시술과 수술을 받은 것은 분명해보인다. 먼저 상안검 성형술(쌍꺼풀 수술)을 받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 없던 쌍꺼풀이 어느 순간 생긴 걸 보고 필자는 주변에 “어, 찼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마, 미간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것도 분명해 보인다. 대선 유세 때 보이던 이마주름이나 눈가 주름이 없어지고, 최근 대통령이 웃는 모습의 사진을 봐도 주름이 잡히지 않는다.

실리프팅이나 필러 시술을 받았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 웃을 때 우측 볼, 광대 부위에 약간의 함몰이 생긴다. 대부분 실리프팅 후 생기는 현상이다. 팔자주름도 없어졌고, 심술보 주름이라 부르는 입가의 주름도 현격하게 줄었다. 필러시술은 일명 ‘물광필러’라는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해본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보톡스와 섞어 진피에 주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 당일은 대통령이 이런 시술을 하지 않은 듯 하다. 이유는 급박한 사고가 있으면, 쉽게 연기할 수도, 시술 중 중단할 수도 있는 시술이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박 대통령은 부신피로증후군으로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과 의무실장이 태만주사를

처방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어쩌면 조만간 대통령이 만성피로에 시달려 치료목적으로 면역주사나 줄기세포주사를 맞았다는 보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태만주사는 복부 피하층에 주사를 하는데, 흔히 ‘동네병원’에서도 많이 하며 2~3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시술이다. 이걸 맞자고 대통령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것 같진 않다. 청와대의 관계자들이 태만주사라는 주사제를 태만에서 추출한 제대혈 주사와 의도적으로 혼동해 쓰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출산 직후 산모에게서 태반이 나오게 되는 데, 이 태반의 혈액을 채취한 것을 제대혈이라고 한다.

만약 최순실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ㅈ’ 병원에서 대통령의 혈액과 매칭된 제대혈을 확보했다거나 제대혈로부터 성체 줄기세포를 배양했거나, 미리 병원을 방문해 채혈한 대통령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배양해 이들을 단독 또는 혼합해 정맥주사로 투여할 기회가 생겼다면, 대통령이 중요한 일과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러한 정맥주사용 제제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그날(4월16일) 투여하지 않으면 폐기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추론이 가능하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사건 보고를 받는

대통령 얼굴은 상당히 부어있다. 빠른 시간에 정맥주사로 수액을 맞거나 수혈을 받을 경우에 대부분 얼굴이 붓는다. 하지만 대통령의 나이와 성별을 고려해 봤을 때 혈관이 그리 크지 않아 아마도 정맥주사를 맞았다고 가정할 시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다.

문제는 줄기세포를 병원 외에서 배양하는 것이나, 면역세포를 배양하는 것이 불법이고, 더군다나 산모의 태반에서 동의 없이 제대혈을 채취해 VIP의 미용과 항노화 치료에 쓰였다면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세월호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부신기능 저하증 때문에 심한 만성피로를 겪었거나, 심한 몸살(2015년 중동 방문 후) 때문에 정맥주사(마늘주사·백옥주사 등)를 맞고 있었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역시 추론은 추론일 뿐이라는 생각도 든다.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이 평일 직무시간에 생명에 위급하게 관련되지 않는 시술을 받았다면,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대통령도 인간인데 몸이 아파 링거를 맞고 있었다면, 일반 국민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긍할 것인데 말인다. 이러한 의구심이 ‘비아그라’나 ‘팔팔정’ 같은 약품과 어우러져 자꾸만 국민을 관음증으로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 편집국장 程厚植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br>(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br>(FAX 222-4938) | 경영지원국<br>(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br>(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br>(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br>(FAX 222-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다 지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br>(FAX 02-773-9335)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